



이학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사이좋게 무리지어 사는 돌고기

학명 : *Pungtungia herzi* HERZENSTEIN, 1872

지역 방언 : 깨고기, 댕미리, 돌피리, 독고기, 돌뱅뱅이, 돌꼬지 등

분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전국의 하천

주 서식장소 : 물이 맑은 하천의 중류

번식기 : 5~7월

크기 : 15센티 내외

물이 맑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2급수 이상인 큰 강이나 시골의 작은 하천 등 전국 거의 전 수역에 자생하여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물고기가 바로 이번 호의 주인공 돌고기다. 돌고기에 대한 어원은 주둥이가 뭉툭하고 납작하게 생겨 돼지 입처럼 보인다고 ‘돈(豚)고기’로 불리다가 차츰 발음하기 쉬운 돌고기가 되었다는 설과 계류의 돌과 바위 사이에 주로 산다고 돌(石)고기라고 하는 설이 있다.

돌고기의 몸 색깔은 일반적으로 배 쪽은 연한 황색 또는 회갈색을, 등 쪽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지느러미는 반투명한 주황색을 띠며 몸의 중앙에는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어린 새끼일수록 이 줄무늬가 뚜렷하고 색이 진해 매우 아름답다. 하지만 성체가 될수록 몸이 통통해지고 체색도 거무튀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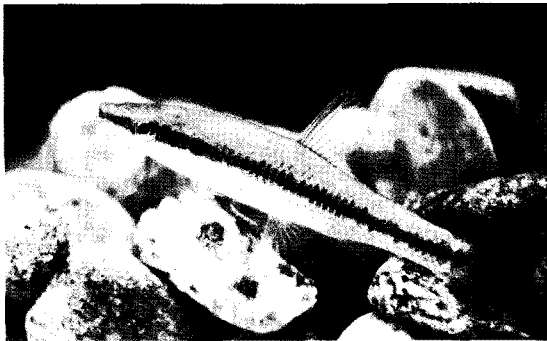
하게 바뀌어 불뾰미 떨어진다. 서식처에 따라서 체색이 쉽게 변하는 개체들도 발견되고 있다.

돌고기는 주로 돌과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돌에 붙은 이끼류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 먹는 잡식성이다. 이 녀석들의 식성과 텃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웃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이 기를 못 펼 정도다. 주둥이의 흡착력이 매우 강해 이끼를 잘 잡아먹고 심지어 딱딱한 껍질을 가진 다슬기까지 돌고기의 밥이 되곤 한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 유달리 협동심이 뛰어난 돌고기는 여러 마리가 다슬기를 집중 공격하여 알맹이를 빨아내어 먹어치운다. 이렇다 보니 돌고기의 몸에는 디스토마가 많다. 필자가 수십 년 동안 전국의 하천을 조사하며 다니다 보면 의외로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빙어, 꺾지, 피라미, 붕어, 잉어뿐만 아니라 돌고기까지 날로 먹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을 해보지만 그저 소귀에 경읽기다. 근래 아무리 좋은 약과 의료가 발달했다지만 날로 담수어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독자들은 잘 알아주기 바란다.

돌고기는 비록 성어가 15센티도 안 되는 소형어종이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단결력이 뛰어난 물고기다. 우리 한국인들이 강한 응집력을 가졌듯 돌고기 무리 역시 그러한 힘을 지닌 자랑스러운 우리 토종 물고기인 것이다. 이들을 매운탕 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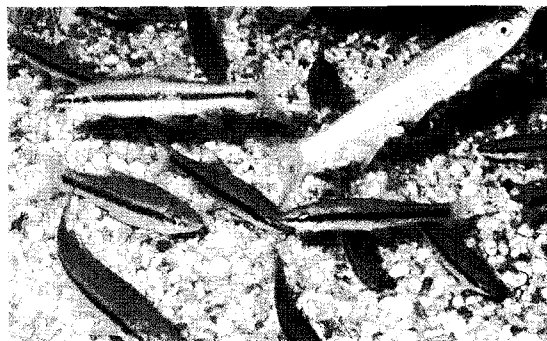
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귀중한 하천 생명자원이기 때문이다.

어린 개체들은 어항에서 기르기 쉽고 때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아름다워 근래 우리 민물고기 애호가들이 찾는 대표적인 관상어로 각광받고 있다. 실내 수조의 어린 돌고기들은 멋진 줄무늬를 자랑하며 무리를 지어 유행을 하는 데 이 물고기가 토종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열대어로 착각할 정도다. 실지 외래 관상어 중에서도 우리의 돌고기와 닮은 물고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돌고기

돌고기는 어릴수록 예쁜 물고기다. 성어가 될수록 몸이 둔해 보이고 몸 옆의 검은 줄무늬도 희미해진다. 입주둥이에서 꼬리까지 길게 한일자로 검은 무늬가 있어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물고기다.



〈그림 3〉 때를 지어 먹이활동을 하는 돌고기

돌고기는 대부분 대단한 대식가다. 잡식성으로 물이끼, 수서곤충 등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돌고기가 무리를 지어 먹고 노는 곳에 눈치 없이 끼어든 피라미 새끼가 뒷세에 밀려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이 우측 상단에 보인다.

돌고기는 주로 중층을 무리지어 헤엄치고 때로는 하상에 깔린 유기질을 걸러 먹기도 하며 다양한 은신처를 필요로 하는 어종이므로 하천 생태복원시에는 자갈과 바위의 크기와 배열이 다양한 구조인, 돌고기에 적합한 서식지 개념을 고려해야한다. ●



〈그림 2〉 돌고기 주둥이

돌고기의 주둥이는 다른 물고기의 입보다 훨씬 두툼하게 발달되어 있다. 마치 돼지의 입과 흡사하다 해서 예전에는 돈고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입은 빠른 힘이 강해 이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수조 밖에서도 짹짹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그림 4〉 서식지

돌고기가 때를 지어 서식하는 경기도 여주의 하천 돌고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자생하는 물고기로 하천이 크게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다. 그러나 과거 획일적인 하천공사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물고기 중 하나다.